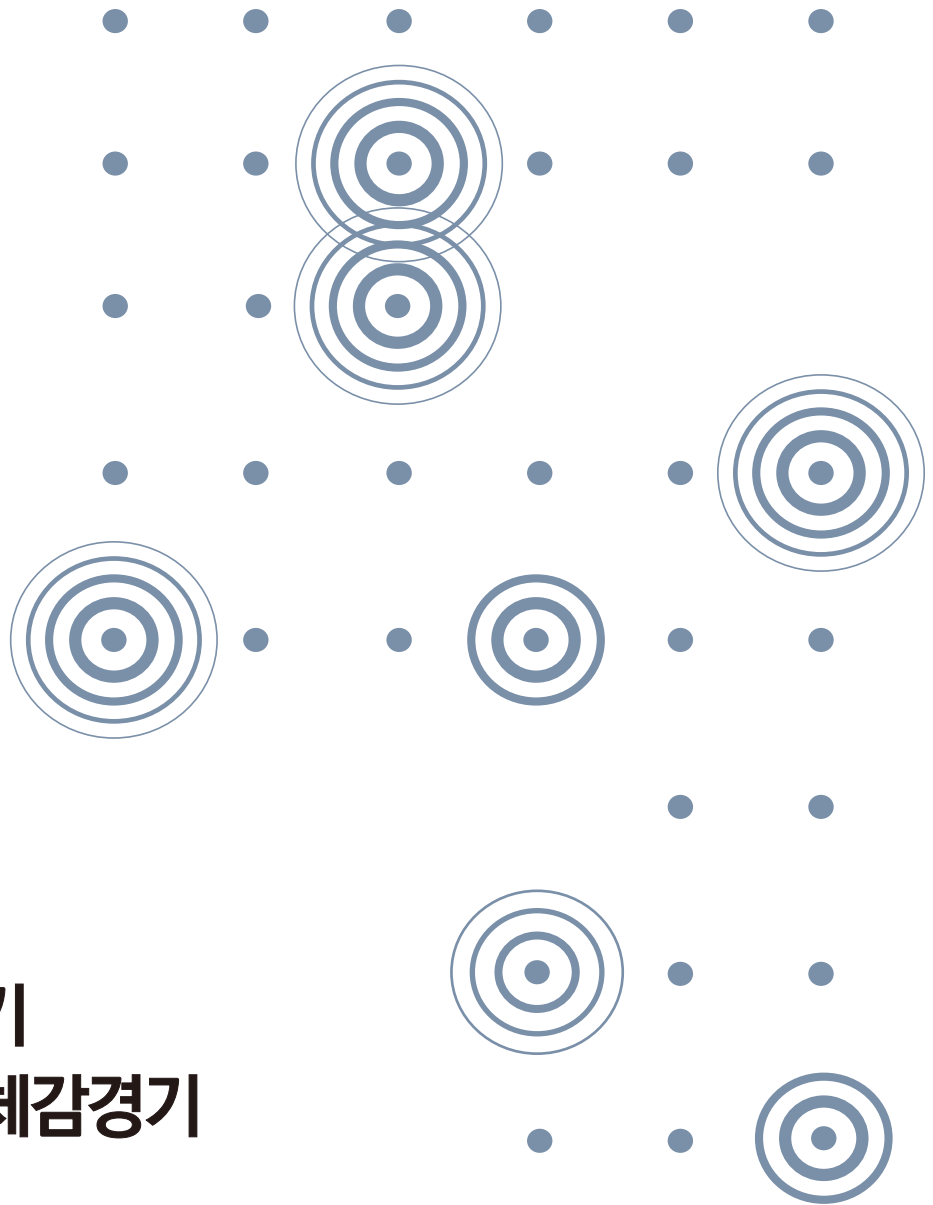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72호 2023. 5. 22



—
2023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72호

2023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5월 22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02-2149-1223
jbs66@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8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19
부록 2. 2023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0

서비스업 생산은 상승 유지, 제조업 생산은 하락 지속

2022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33.0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증감률도 전년 동기 대비 4.8%, 전 분기 대비 7.4% 상승했다. 반면, 2023년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7.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하락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8.0% 상승한 143.8로 조사되며 통계지수의 기준연도가 되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6%와 4.3% 증가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2023년 1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0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8% 감소한 87만 9천 명으로 나타났고, 2022년 3월 이래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고용여건이 작년보다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체감 경기지수 3분기 연속 하락, 작년 동기보다 저조

2023년 1/4분기 시민의 체감경기를 종합하는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 기준 88.0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의 96.4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물가, 금리, 유가의 불안정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 또한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체감지수들의 경우 현재의 경기체감은 하락세, 미래의 경기전망은 상승 전환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4.9p 내린 78.3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5p 오른 94.0으로 상승 전환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p 하락한 53.2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50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3p 오른 70.8로 4분기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재소비지출지수」도 112.3으로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했으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4.5로 전 분기 대비 0.6p 소폭 상승했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2p 감소한 68.9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60선 수준까지 떨어졌고, 「고용상황전망지수」 또한 전 분기 대비 3.4p 내린 72.9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주택 구입태도지수」의 경우에는 72.0으로 전 분기 대비 5.9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I. 최근 서울경제 여건

I 서비스업 생산은 상승 유지, 제조업 생산은 하락 지속¹⁾

2022년 4/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최근 10년 중 최고, 증감률도 4.8% 증가

- 2022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30선을 상회,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33.0²⁾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증감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전 분기에 비해서도 7.4%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1.2%), ‘숙박 및 음식점업’(23.5%), ‘운수 및 창고업’(12.0%)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모두 증가

[표 1] 서울시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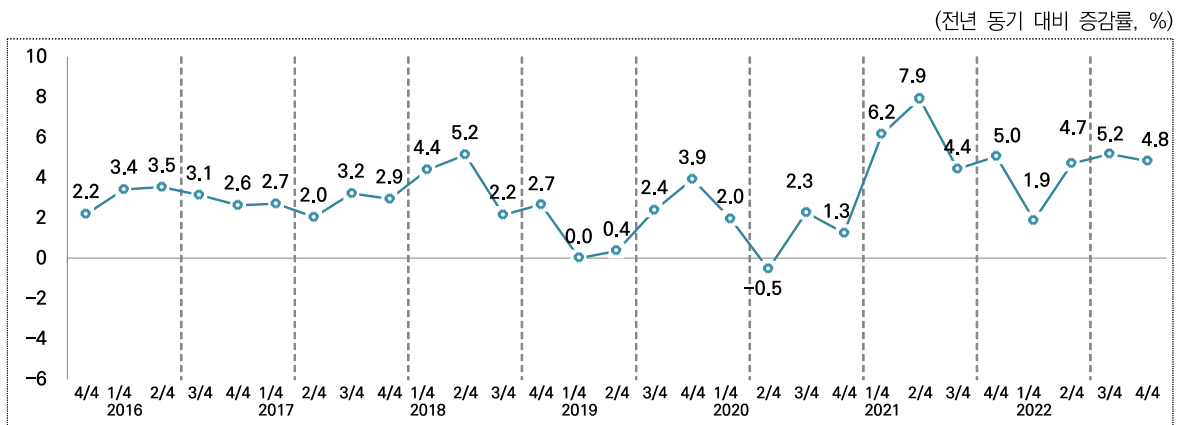
(단위: 2015=100)

구분	2021년				202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p)
총지수	115.4	118.7	117.7	126.9	117.6	124.3	123.8	133.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6.2)	(7.9)	(4.4)	(5.0)	(1.9)	(4.7)	(5.2)	(4.8)

주1: 2022년 4/4분기의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1) 2023년 1/4분기 기준, 「수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분기별로 자료를 공표함에 따라 2022년 4/4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인 반면, 월별 공표인 「제조업생산지수」는 2023년 1월이 가장 최근 자료임
-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21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음(단위: 2015=100).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2023년 1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7.3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

-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최근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23년 1월에는 -11.6%를 기록

[표 2] 서울시 제조업생산지수(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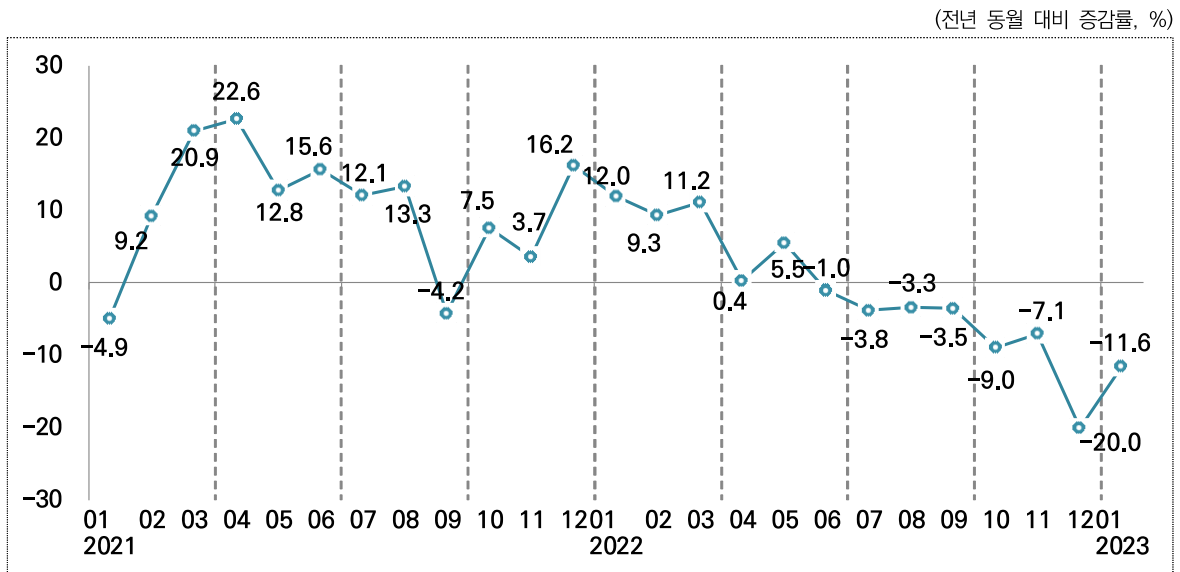
(단위: 2020=100)

구분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월 p)
총지수	110.1	100.8	126.5	110.5	103.1	104.3	103.7	107.7	108.8	107.8	107.8	107.9	97.3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12.0)	(9.3)	(11.2)	(0.4)	(5.5)	(-1.0)	(-3.8)	(-3.3)	(-3.5)	(-9.0)	(-7.1)	(-20.0)	(-11.6)

주1: p는 잠정치(최근 2개월)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주2: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 말 또는 3월 초)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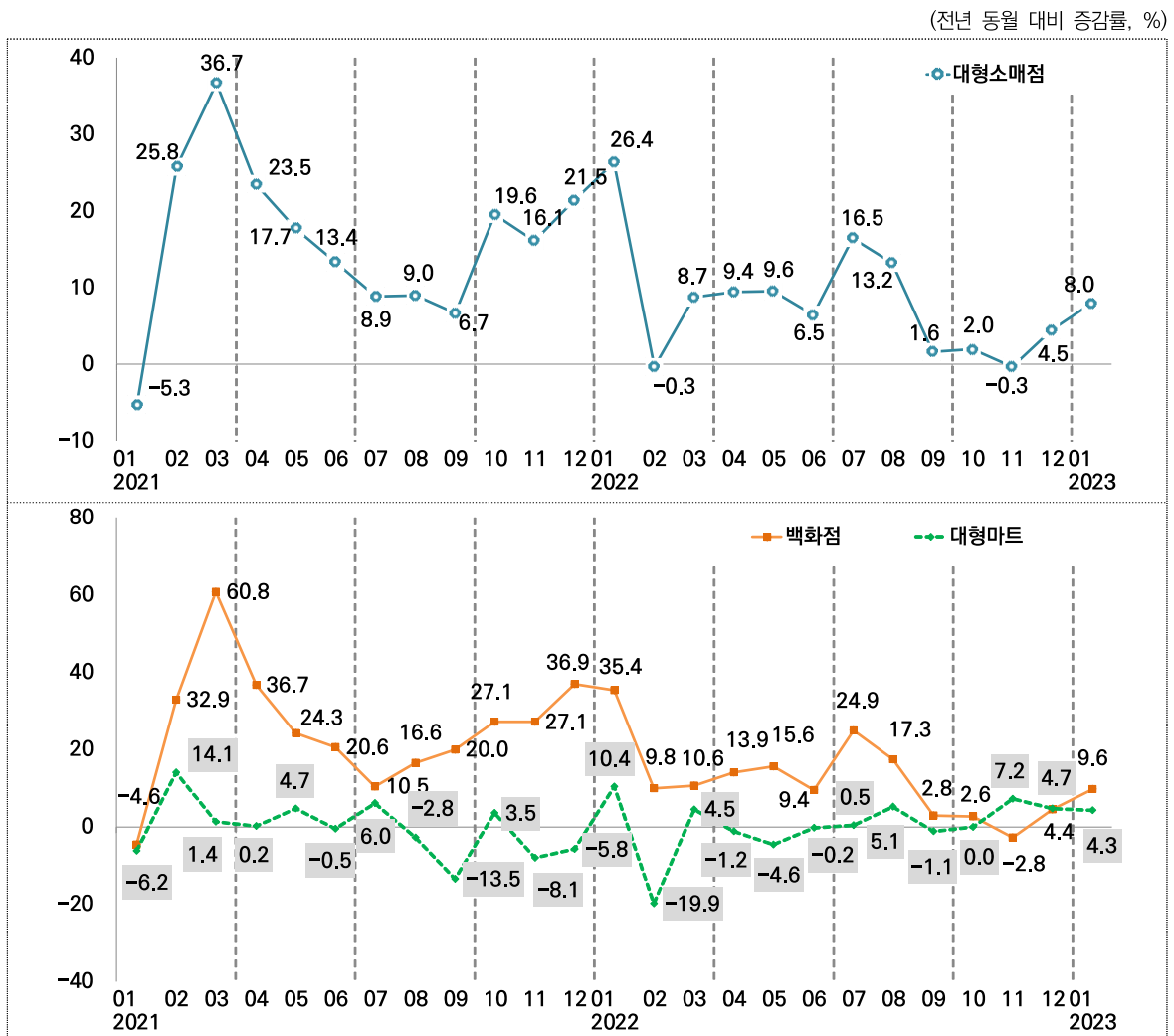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 증감률(원지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 「제조업생산지수」는 2023년 1월 자료 공표 시 대표품목 변경에 따른 가중치 변경,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인해 과거 시계열이 변경(단위: 2020=100)되었고, 2020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20년 이후 지수는 1자리로 작성됨. 전국지수는 연쇄 라스파이레스, 지역 지수는 고정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됨.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2023년 1월 현재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43.8로 기준연도 이후 최고치 기록

- 내수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⁴⁾는 전년 동월 대비 8.0% 상승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8.0% 상승한 143.8로 조사되며 통계 지수의 기준연도가 되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부문별로는 「백화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각각 9.6%와 4.3% 증가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 오른 155.4를 기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122.9를 기록



[그림 3] 서울의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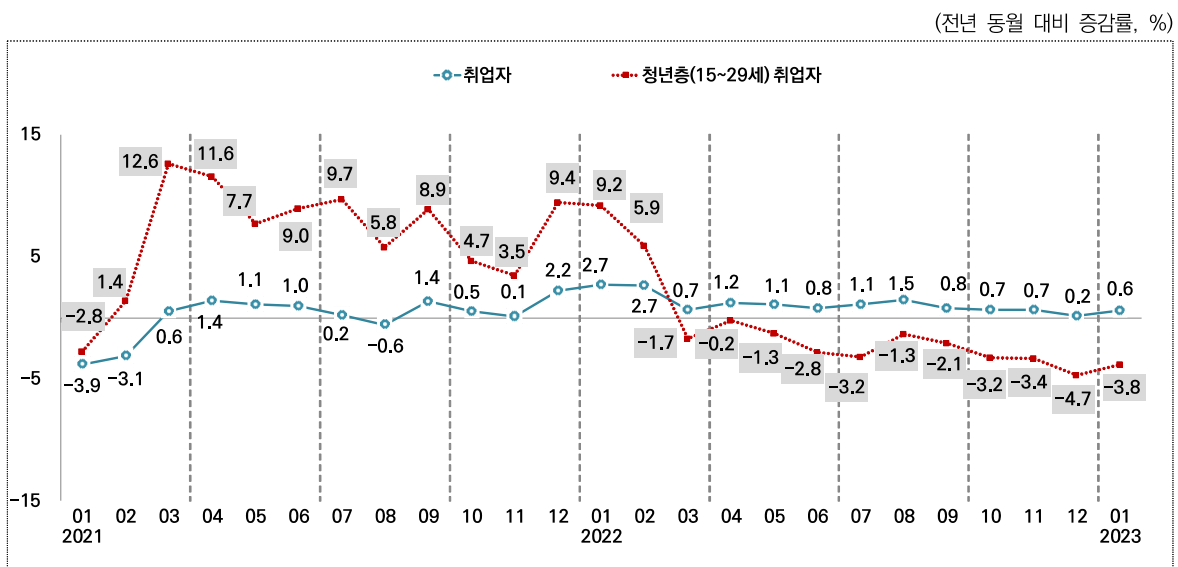
주: 2020=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는 2분기부터 반영 예정)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음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비슷한 수준,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 감소

- 2023년 1월 서울의 「취업자」⁵⁾는 50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소폭 증가
 -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의 502만 6천 명보다 3만 1천 명(0.6%) 증가
- 반면,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보다 3.8% 감소한 87만 9천 명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3년 1월 들어 전년 동월의 91만 4천 명보다 3.8% 감소한 87만 9천 명을 나타냄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증감률은 2022년 3월 이래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고용여건이 작년보다 더 취약해짐
-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
 - 2023년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7만 8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5천 명 증가



[그림 4]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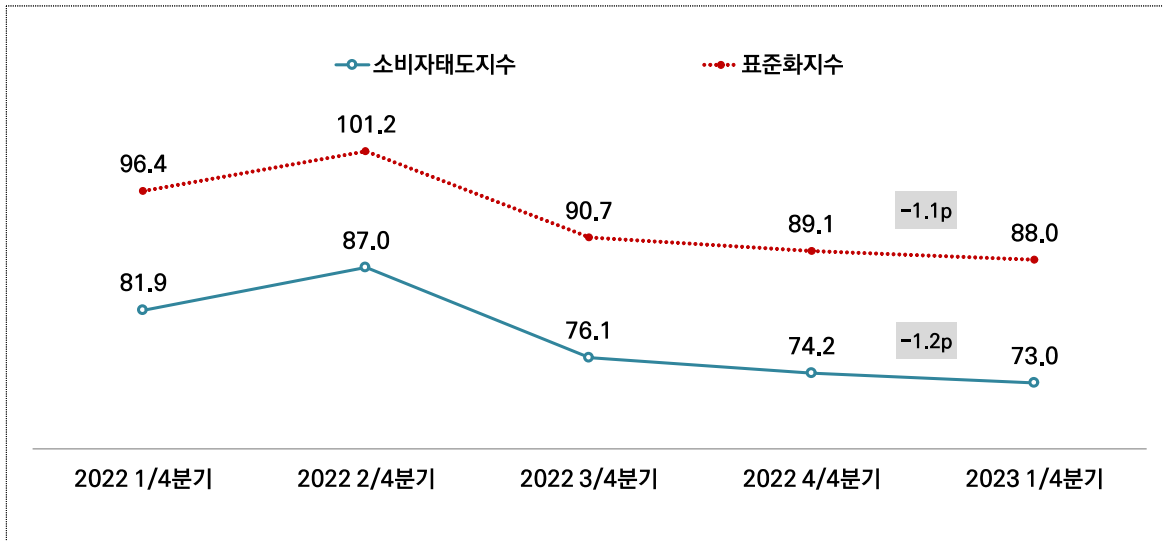
5)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CSI)

I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지수는 3분기 연속 하락, 작년 동기보다 저조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⁶⁾는 하락세가 지속되며 작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 2023년 1/4분기 시민의 체감경기를 종합하는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⁷⁾ 기준 88.0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의 96.4보다 저조
 -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하락한 73.0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작년 같은 기간의 81.9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각각 5.9p, 5.1p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8.1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전 분기 대비 5.1p 내려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3년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물가, 금리, 유가의 불안정성과 저성장 환경 영향에 노출
 - 2022년 중반 이후 최근까지 물가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당분간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 또한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 등은 경기 변동과 직결된 고용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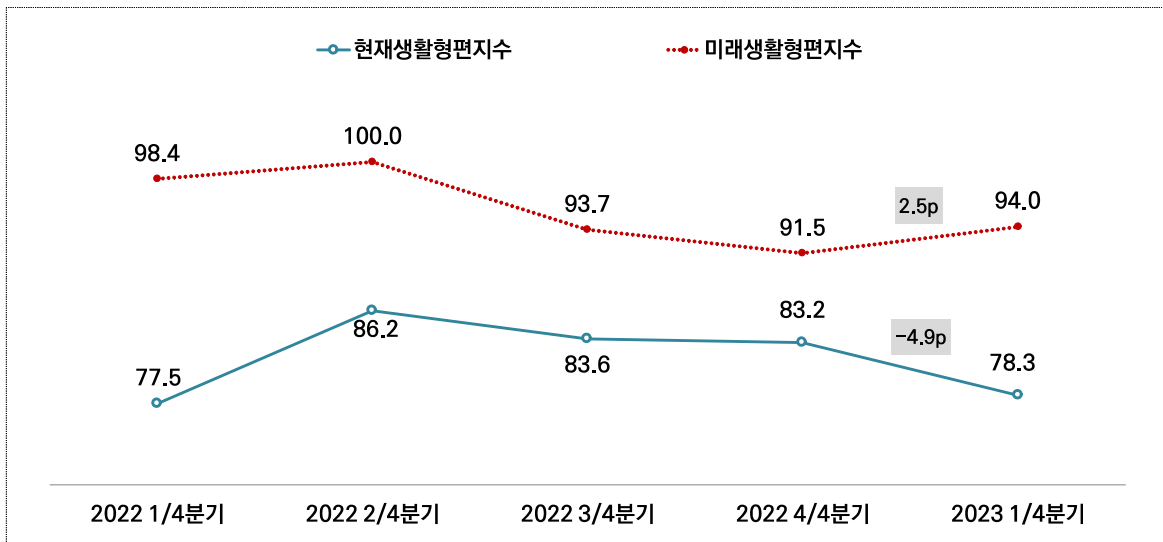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6) 5가지 개별 CSI 지수를 통해 산정되는 종합 소비자 체감경기지수(CSI)로서, 소비자태도지수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을 참고

7)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현재생활형편지수는 하락세 지속,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상승 전환⁸⁾

- 2023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전 분기보다 4.9p 내린 78.3을 나타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5p 오른 94.0으로 상승세로 전환
 - 가구소득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각각 10.6p, 10.3p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큼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4,800만 원 미만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13.3p 올라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30대 이하와 60대에서 각각 6.2p, 1.9p의 상승을 나타냄
- 서울시민들이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⁹⁾
 - 시민들은 ‘가계소득 증가’(44.6%)를 가계 생활형편 호전의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고, 그 외에 ‘가계부채 감소’(14.1%),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1.6%), ‘막연한 기대감’(9.1%) 등도 주된 이유로 응답
 - 가구소득별로 보면, 대체로 ‘가계소득 증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물가 안정’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가계소득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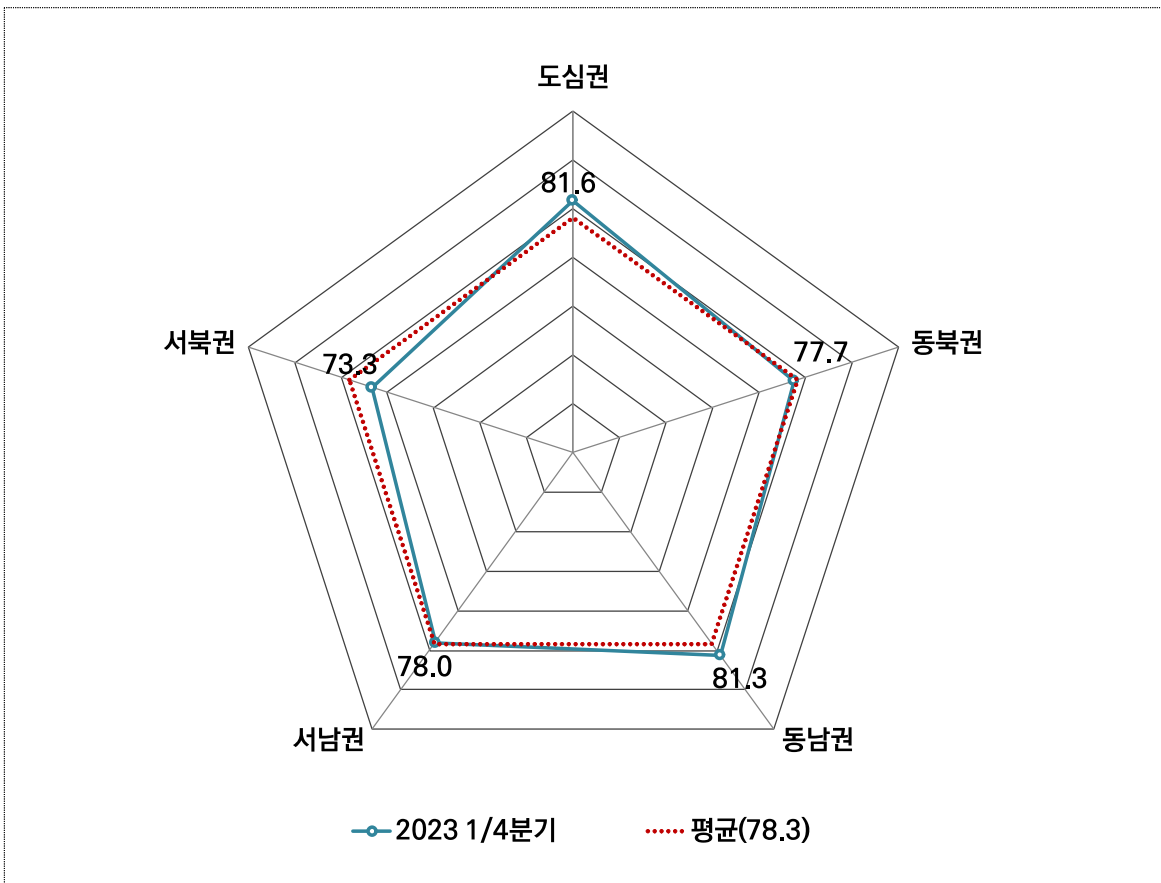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8) '생활형편'은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가계생활을 해나가는 수준으로 살림살이의 형편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생활형편(1년 전 대비 현재의 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현재 대비 1년 후 생활형편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 9) 서울시민의 23.0%(276명)는 1년 후 '미래생활형편 호전'을 전망했고 29.6%(355명)는 '미래생활형편 악화'를 전망했으며, 전 분기 대비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미래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지역별로는 도심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가 가장 높고, 서북권이 가장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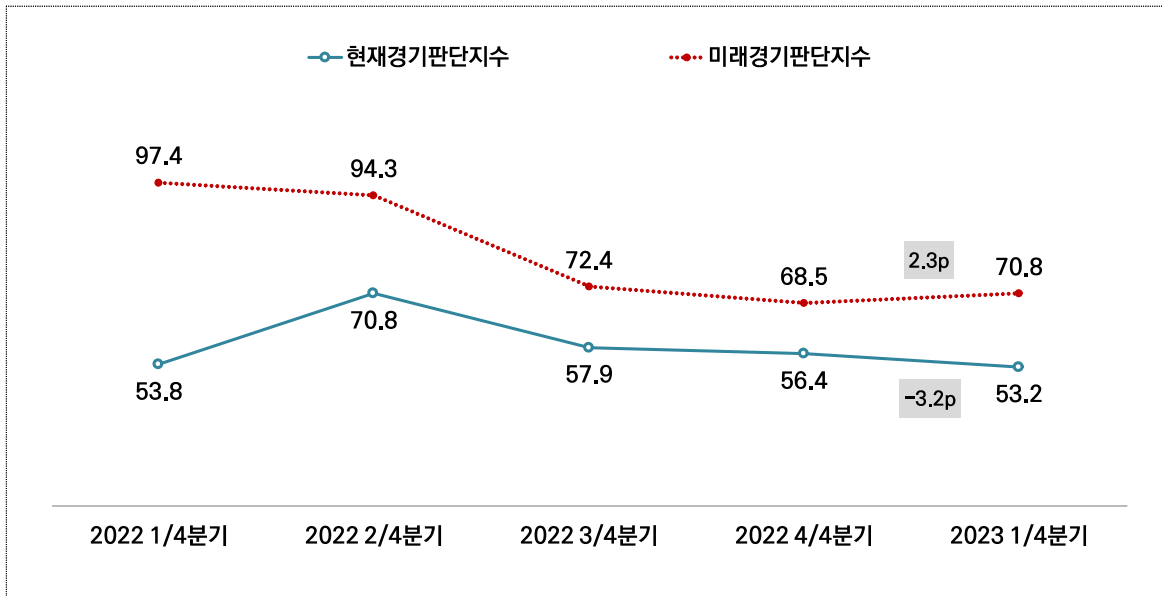
- 2023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이 가장 높고, 서북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
 - 5개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이 81.6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동남권 81.3, 서남권 78.0, 동북권 77.7, 서북권 73.3 순으로 조사
- 전 분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생활형편지수」는 5개 권역 모두에서 하락
 -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의 하락폭은 도심권이 -8.9p로 가장 컸고, 동북권이 -2.2p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그림 7] 서울의 5개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분기 연속 5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소폭 상승¹⁰⁾

- 2023년 1/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p 하락한 53.2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22년 3/4분기 57.9, 4/4분기 56.4, 2023년 1/4분기 53.2 등 3분기 연속 50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7.8p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
 - 가구주 연령대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0대(46.9)와 50대(47.4)가 50선을 하회했으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또한 40대(-8.8p)와 50대(-4.8p)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23년 1/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3p 상승한 70.8을 기록
 - 2023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3p 오른 70.8로 4분기 만에 반등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74.3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 분기에 비해서도 6.9p의 가장 큰 폭의 상승
 -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76.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 분기 대비 상승폭은 50대가 9.9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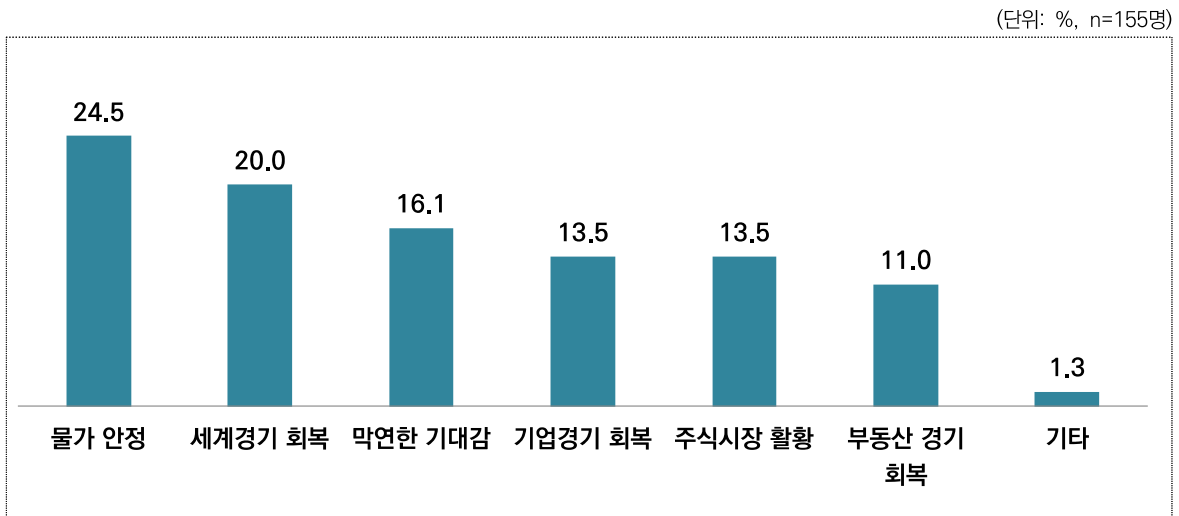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10) '서울지역 경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경기(1년 전 대비 현재의 서울지역 경기)와 미래경기(현재 대비 1년 후 서울지역 경기 전망)를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안정'과 '세계경기 회복'을 지목¹¹⁾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물가 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득계층과 연령대별로 차별적
 - '물가 안정'에 대한 응답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계경기 회복'(20.0%), '막연한 기대감'(16.1%) 등도 우선적 이유로 응답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막연한 기대감'(32.0%),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세계경기 회복'(각각 33.3%, 25.0%),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주식시장 활황'(40.0%), 7,200만 원 이상은 '물가 안정'(34.8%)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인식
 - 연령대별로도 30대 이하는 '주식시장 활황'(26.5%)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와 60대는 '물가 안정'(각각 26.3%, 27.8%), 50대는 '세계경기 회복'(25.0%)과 '기업경기 회복'(25.0%) 등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앞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023년 2월 현재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전년 동월의 3.3%와 비교하면 1.5%p 높은 수준을 유지
 -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2년 10월 5.1% → 11월 4.7% → 12월 5.0% → 2023년 1월 5.1% → 2월 4.8%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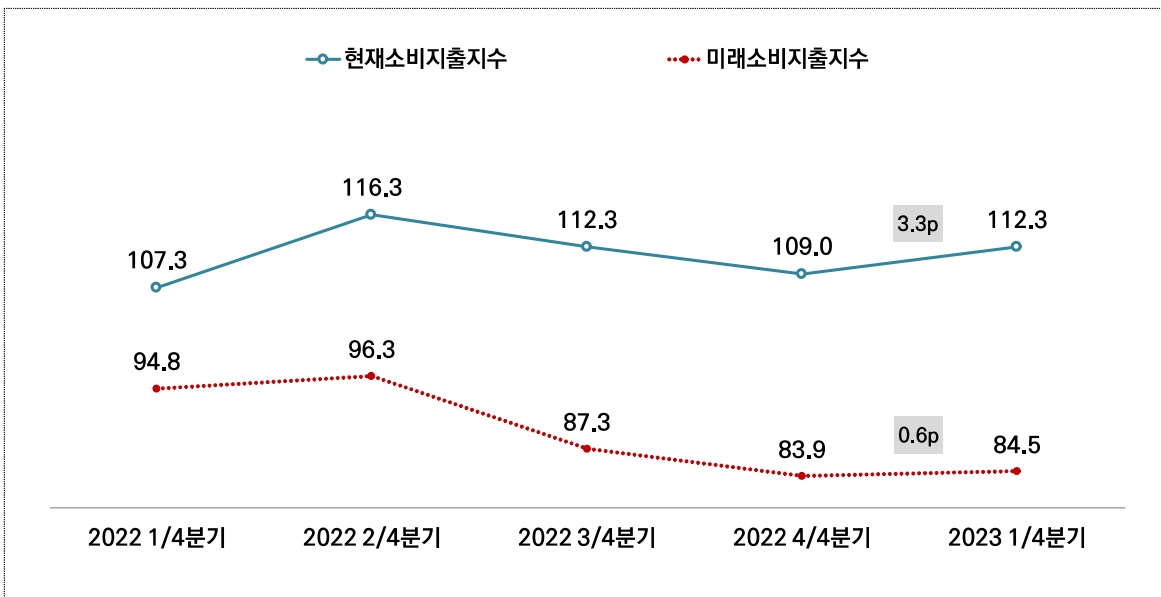
[그림 9]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

11) 서울시민의 12.9%(155명)는 1년 후 '경기 호전'을 전망했고, 53.9%(647명)는 '경기 악화'를 전망했지만, 전 분기 대비 미래경기판단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미래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12)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상승 전환¹³⁾

- 2023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내림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
 - 2023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3으로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하며 반등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9.1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연령별로는 60대(-8.1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중 40대(10.9p)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수는 30대 이하(121.4)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2023년 1/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4.5로 전 분기 대비 0.6p 소폭 상승
 -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은 90.4를 기록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1.0p 하락한 75.2로 가장 낮았고, 40대에서는 4.0p 오른 88.6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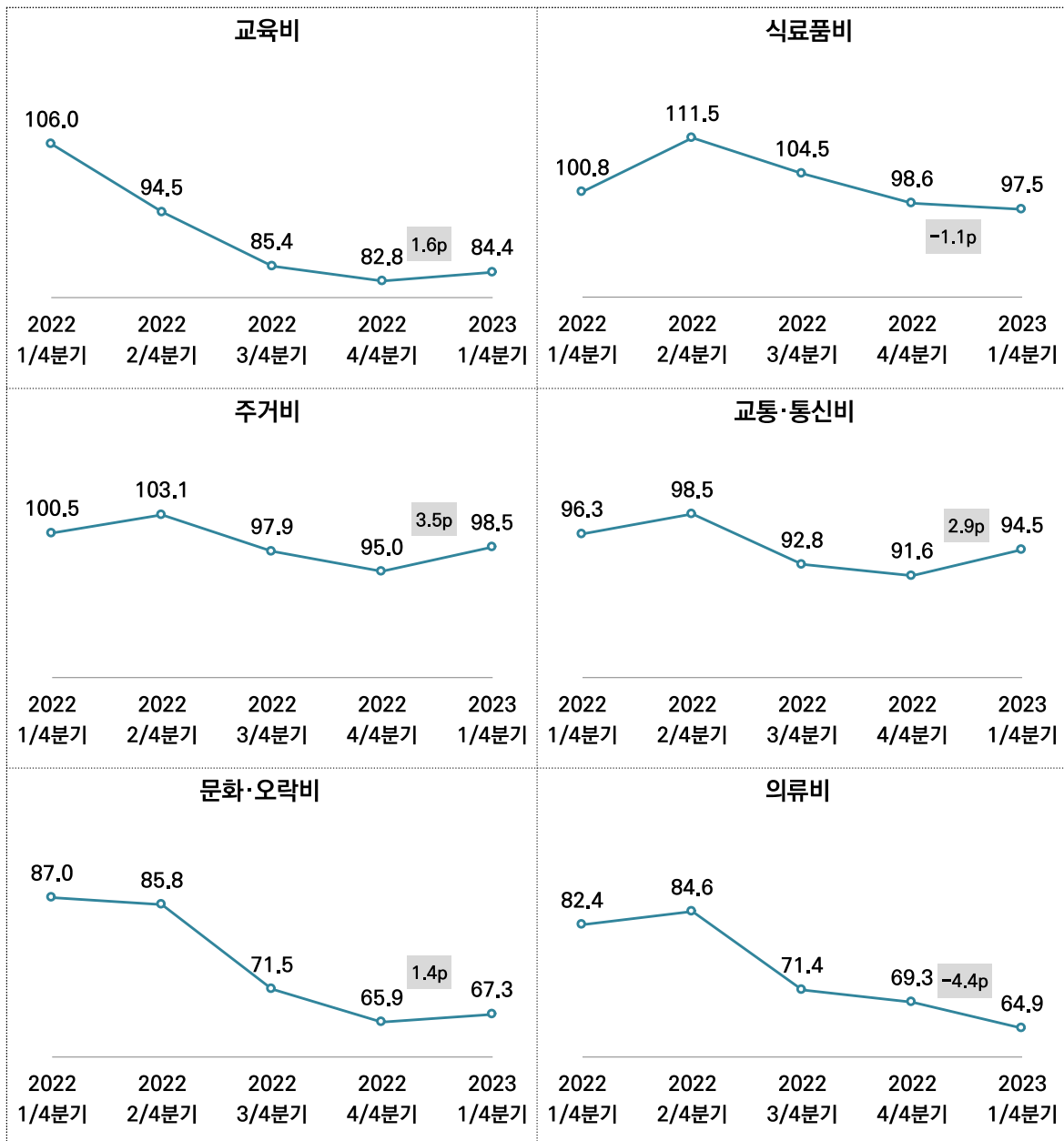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13) '소비지출'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현재소비지출(1년 전 대비 현재의 소비 지출)과 미래소비지출(향후 1년 후 소비지출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2023년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거비'가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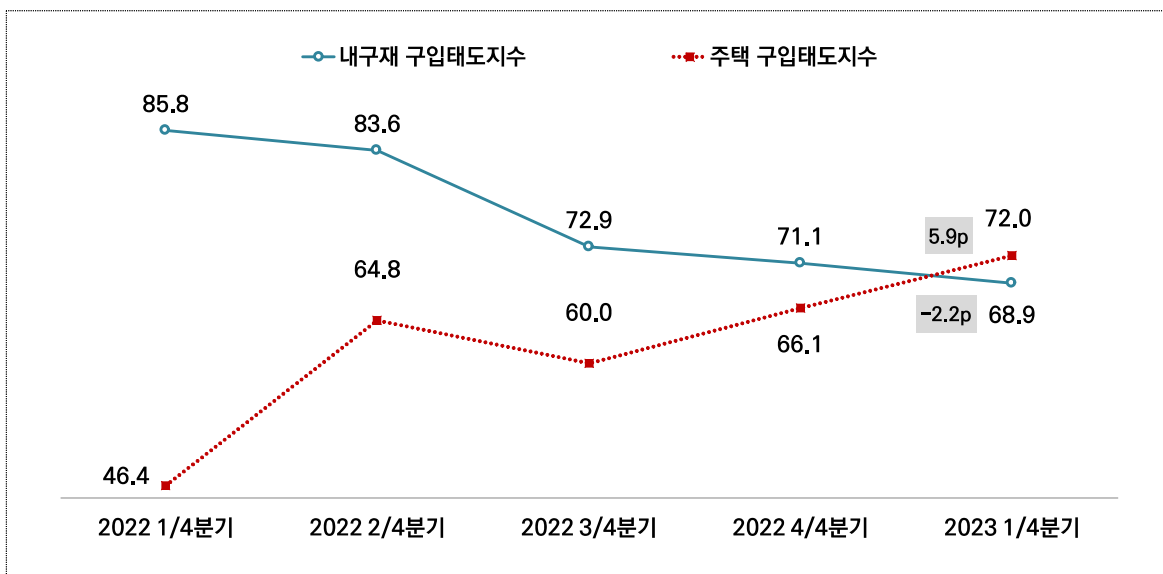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 지수가 98.5로 가장 높고, '의류비' 지수는 64.9로 가장 저조
 -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통신비'가 90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6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미래소비지출지수」 품목 중 '의류비'와 '식료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소폭 상승
 - '주거비'(3.5p), '교통·통신비'(2.9p), '교육비'(1.6p), '문화·오락비'(1.4p) 등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그림 11]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¹⁴⁾는 전 분기보다 2.2p 감소한 68.9로 조사

- 2023년 1/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3분기 연속 하락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0선 수준까지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10.0p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유일하게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40대에서 6.8p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3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¹⁵⁾는 2분기 연속 상승한 72.0을 기록
 - 2023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2.0으로 전 분기 대비 5.9p 상승
 -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0.1p)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83.6으로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50대의 상승폭이 8.3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이와 관련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2022년 6월 103.7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가 이어져 2022년 12월부터 기준치(100)를 하회: 2022년 6월 103.7 → 9월 102.8 → 10월 102.0 → 11월 100.6 → 12월 98.7 → 2023년 1월 97.4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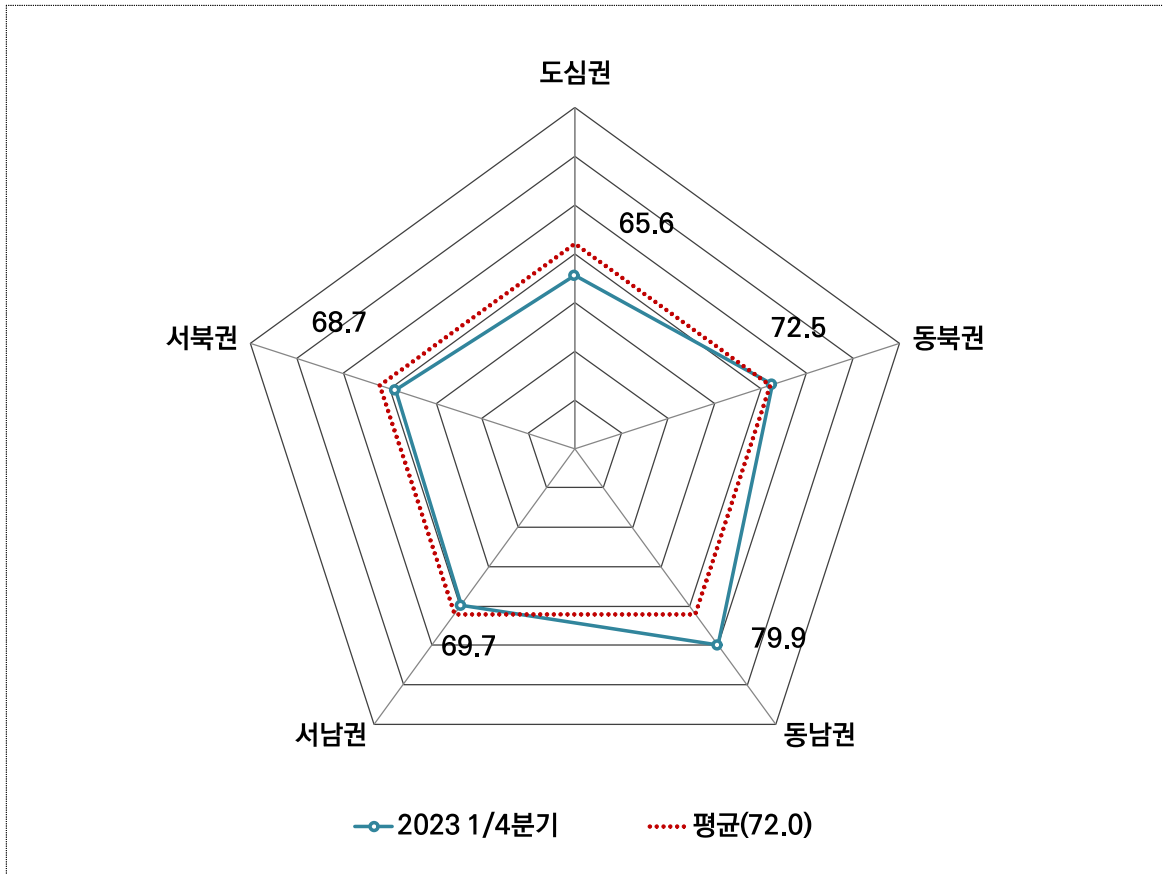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14) 지금이 가구에서 사용하는 대형물건(예: 가구, 승용차, 냉장고 등)을 구입하는 데 적정 시기인가를 조사하여 지수로 산출

15) 지금이 주택 구입에 적정 시기인가를 조사하여 지수로 산출

16) 2021년 9월 기준,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의 기준시점(단위)이 기존 '2017.11=100'에서 '2021.06=100'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수의 흐름과 변동률은 동일함(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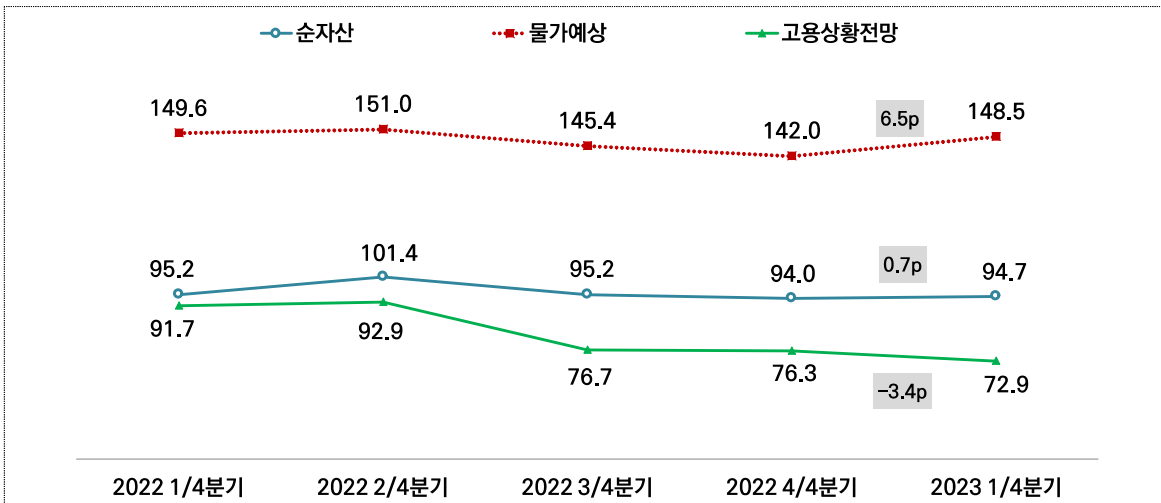
- 「주택 구입태도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 분기 대비 대체로 상승, 도심권만 소폭 하락
 - 2023년 1/4분기 권역별 서울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79.9)과 동북권(72.5)이 가장 높았고, 도심권(65.6)과 서북권(68.7)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동남권은 12.7p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



[그림 13] 서울의 5개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¹⁷⁾, 물가예상지수¹⁸⁾, 고용상황전망지수¹⁹⁾는 지수별로 상이한 등락 추세

- 2023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94.7로 전 분기 대비 0.7p 소폭 상승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금융자산 증가’가 38.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채 감소’(31.0%), ‘소득 증가’(25.3%)의 순으로 조사
 - 가구소득별로 보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금융자산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부채 감소’ 응답 비중이 37.5%로 가장 높음
 - 연령대별로도 대부분 연령대에서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대’에서는 그 비중이 60%에 육박
- 「물가예상지수」는 2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6.5p 상승한 148.5를 기록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승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18.7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연령대별로도 대다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40대(14.7p)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60대(-2.9p)에서 유일하게 하락
- 2023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3.4p 내린 72.9로 3분기 연속 하락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6.5p의 가장 큰 감소를 보임
 -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79.5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50대(-8.6p)와 40대(-8.1p)는 가장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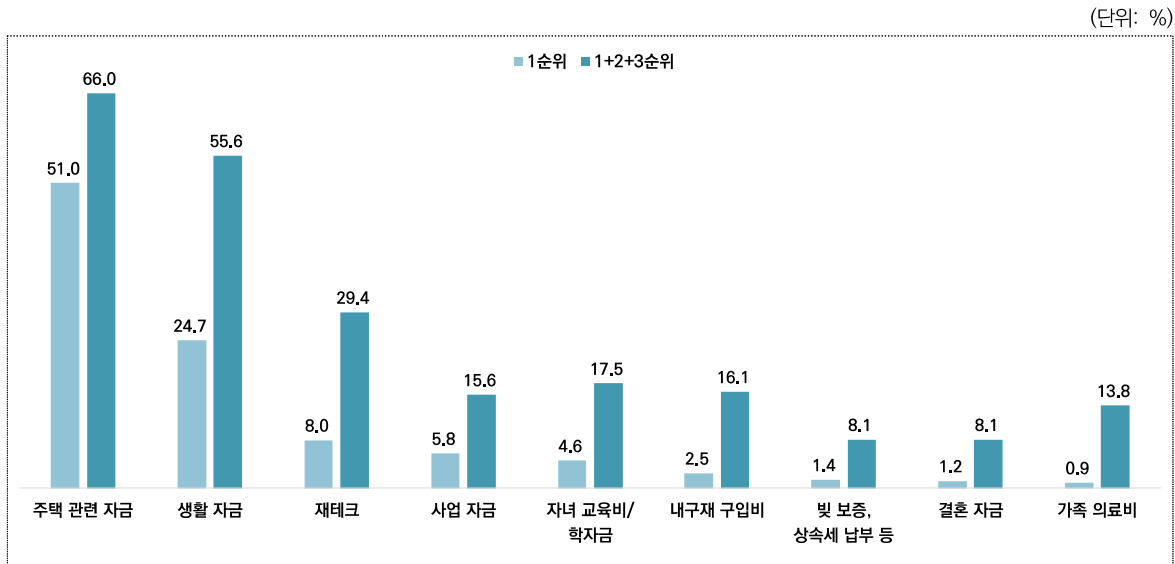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 17) '순자산'이란 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계자산에서 은행 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현황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현재의 순자산 증감 정도를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 18) '물가'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물가 예상 정도를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 19) 과거 1년 동안의 고용상황 정도를 기준으로 향후 1년 후 예상되는 고용상황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출함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 대비 4.7%p 상승

- 2023년 1/4분기 현재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4.4%를 차지
 -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중 30대 이하 연령대가 57.9%로 가장 높음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21.1%로 전 분기 (20.6%) 대비 0.5%p 상승²⁰⁾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2.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4.0%), ‘상환 안 함’(3.4%)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며, 특히 ‘생활 자금’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증가(1순위 기준)
 - 1순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51.0%), ‘생활 자금’(24.7%)으로, 전 분기 대비 ‘주택 관련 자금’은 2.9%p 감소한 반면, ‘생활 자금’은 9.8%p 증가
 -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40~60%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생활 자금’(32.4%)의 비중이 더 높음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복수 응답(1+2+3순위)의 경우에도 ‘주택 관련 자금’(66.0%), ‘생활 자금’(55.6%)과 ‘재테크’(29.4%)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15]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20)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

부록 1. 소비자태도지수 산출방법

- 종합 소비자 체감 경기지수(CSI)인 ‘소비자태도지수’는 아래의 5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단, 특정 개별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값 적용)
 - 5개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판단지수, 내구재구입지수
 - 산출 방식

$$\text{소비자태도지수} = \frac{(a+b+c+d+e)}{5}$$

a : 현재생활형편지수
b : 미래생활형편지수
c : 현재경기판단지수
d : 미래경기판단지수
e : 내구재구입지수

- 위 5개 항목별(*a~e*) CSI는 소비자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5점 척도로 질문하되, 각 척도별로 0~200점의 수치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
 - ‘매우 감소, 매우 악화’ 0점, ‘다소 감소, 다소 악화’ 50점, ‘동일, 유지’ 100점, ‘다소 증가, 다소 호전’ 150점, ‘매우 증가, 매우 호전’ 200점

$$CSI_{a \sim e} = \left(\frac{0 \sum_{ij \in n_1} n_{ij1} + 50 \sum_{ij \in n_2} n_{ij2} + 100 \sum_{ij \in n_3} n_{ij3} + 150 \sum_{ij \in n_4} n_{ij4} + 200 \sum_{ij \in n_5} n_{ij5}}{\sum_{ij} n} \right)$$

i : 권역을 나타내는 첨자 (*i* = 1(도심권), 2(서북권), 3(서남권), 4(동남권), 5(동북권))
j : 가구주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 (*j* =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n_{ij} : *i* 권역, *j* 가구주 연령 그룹 내 조사된 응답 가구 수
n : 조사된 전체 응답 가구 수 ($(n_1, n_2, n_3 \dots n_n) \in n$: 문항별 조사된 응답 가구 수)

부록 2. 2023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시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우리 조사와 유사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임
 - 한국은행의 ‘2023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0.2로 전월 대비 0.5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2년 1/4분기	96.4	77.5	98.4	53.8	97.4	85.8	46.4
2022년 2/4분기	101.2	86.2	100.0	70.8	94.3	83.6	64.8
2022년 3/4분기	90.7	83.6	93.7	57.9	72.4	72.9	60.0
2022년 4/4분기	89.1	83.2	91.5	56.4	68.5	71.1	66.1
2023년 1/4분기	88.0	78.3	94.0	53.2	70.8	68.9	72.0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2년 1/4분기	107.3	94.8	95.2	91.7	149.6
2022년 2/4분기	116.3	96.3	101.4	92.9	151.0
2022년 3/4분기	112.3	87.3	95.2	76.7	145.4
2022년 4/4분기	109.0	83.9	94.0	76.3	142.0
2023년 1/4분기	112.3	84.5	94.7	72.9	148.5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임 (2023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23년 3월 14일~3월 27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